



(왼쪽부터) 임용택 전북은행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이 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방은행장, 지역경제 버팀목 돼 달라”

윤석현 금감원장 ‘지방은행 간담회’ “신생·중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주문과 지방은행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내놨다.

윤 원장은 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 소재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김태오 대구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지방소재 기업들이 부실화돼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 은행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복원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

융을 활성화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옥석가리기 해 필요한 자금 중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들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지난 3월 감독규정에 근거가 마련돼 올해 중 시범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는 시금고 선정기준에 반영된다.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 역시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윤 원장은 “먼저 대손총당금 산정과 관련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며, 경영실태 평가 및 리스크평가 시에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자산규모, 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현대차, KST모빌리티에 50억원 투자

‘마카롱택시’ 사업인프라 확대 등 빅데이터·AI 플랫폼 고도화 박차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투자를 통해 마카롱택시 사업 인프라 확대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도 현대·기아차와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내외 지능형 교통시스템,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 등에 전략적 투자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KST모빌리티 투자는 택시업계와의 상

생 구조 아래 택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과 정부의 전기택시 보급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번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기아차와 KST모빌리티는 택시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전략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공급자 예측 매칭과 수요응답형 대내믹 라우팅 알고리즘 등 택시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다 발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대·기아차와 KST모빌리티의 협력은 택시산업 혁신은 물론 한국적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손정의, 재계 빅3 총수 만난다

## 日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방한

삼성전자, 5G 장비 수주 논의할 듯  
현대차-SVF 협업, 亞 진출 박차  
LG, 화웨이 장비 관련 조언구할 듯

국내 재계 총수들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난다. 얼어 붙은 한일 관계 개선 역할도 기대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손 회장은 4일 방한해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약속한 상태다.

회동 대상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 LG그룹 구광모 대표 등이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와 관련한 일정으로 총수들과 만남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만나지 않는다.

SVF는 우버와 반도체 자산 설계업체인 영국 ARM(암)의 최대주주다. 그룹을 비롯한 신성장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연합뉴스

이 부회장과 손 회장 만남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와 5G, 전장 등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RM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ARM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서도 ARM과 협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과 전장 등 여

러 사업 분야에서도 접점이 많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에 5G 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논의할 수도 있다. 소프트뱅크가 최근 5G 상용화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현대차그룹도 SVF와 긴밀한 관계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만큼, 모빌리티 사업에 중점을 둔 SVF와는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그랩에 2억7500만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LG는 소프트뱅크와 LTE 통신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는 접점이 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 실마리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손 회장이 총수들과 회동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예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식약처, 코오롱생명 청문회 검토  
“안전·유효성 확보안돼 위해 우려”  
1년간 동일성분 품목허가신청 못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청문회 검토 결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9일자로 최종 취소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 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가취소 처분 확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1년간 인보사의 동일성분으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보사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해 착오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며 “의약품인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개발, 임상, 허가, 시판, 장기추적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 받았으며 식약처 역시 인보사의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 절차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식약처의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2030 중심 관심증대… 채식시장 태동기”

» 1면 ‘식탁위 혁명 대체육…’서 계속

대형 식품업계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동원F&B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물성 고기 생산업체인 비욘드미트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 판매를 시작한 ‘비욘드버거’는 현재까지 약 1만팩(파티 2만개)이 판매됐다. 동원F&B는 6~7월 중소 시장 제품을 후속으로 내놓겠다고 밝

혔다.

롯데푸드는 직접 개발에 나섰다. 지난 달 2년간의 개발 끝에 ‘엔네이처 제로미트’ 브랜드를 통해 너겟과 까스 2종류를 출시했다. 엔네이처 제로미트는 밀 단백질을 기반으로 닭고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롯데푸드는 스테이크, 햄, 소시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올해 제로미트 매출 5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세경 기자

CJ제일제당 역시 자체개발을 선언하고 2021년 대체육 개발을 목표로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대체육 시장도 빠르게 커질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동원F&B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채식시장도 태동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체육 등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